



4면
5G 로봇 활용
대기오염 잡는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道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협약

주요 기업·유관기관 손잡고 미래 수요 선제적 대응 선박 미래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 등 협력강화 약속

대규모 국가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을 통한 도내 조선산업의 위기 돌파 방향타를 정한 전북도가 주요 기업,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전북도는 21일 전북도청 도지사 회의실에서 "전북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교류 업무협약"을 맺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을 중심으로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지찬 LG넥스원 대표,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도는 6개 기관의 협약을 통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주도 선박 미래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 첨단 방산기술 공동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전북도 등 협약 참여기관들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조선분야 신산업 육성과 지원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 지역 조선 기업의 선박 선진화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선박의 미래기술 분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정보 등을 공유한다.

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총수령주기체계관리, 기자재 신뢰성 및 품질 고도화, 국제공동연구 등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상호간 시설 이용의 편의 제공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의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동참한 첫 기업인 LG넥스원은 전북도가 그리는 조선산업의 새 판에 든든한 우군이 될 전망이다.

LG넥스원은 수상함 및 잠수함에 사용되는 유도무기, 레이더, 통신장비는 물론 항만감시체계, 무인수상장잠수정에 이르기까지 해상과 수중 전장 환

경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유지·보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선진화 단지를 구축하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 조선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전북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항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계획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선 관련 업체와 방위사업체 등의 기업 공간을 조성해 친체된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지찬 LG넥스원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북도와 군산시 등 주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

력을 통해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선박 선진화 분야의 산업 기반 및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2017년 7월)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도내 조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신생태계를 육성하는 전략에 따라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국가사업인 선진화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기자



21일 전북도청에서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사진 왼쪽부터), LG넥스원 김지찬 대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배정철 원장,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김광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 위한 관·산·학·연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사진=호원대학교 제공)

초등생이하 1인당 양육비 20만원

도내 총 9만 7515명 혜택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동특별보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명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아동특별보조지원금으로 195여 억 원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로 1천2백여 만원을 마련, 학교밖 아동 접수·차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초등학생에는 추석 전, 학교 밖 아동에는 10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방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부트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7세 미만은 지자체에 지급하

고, 초등학생은 교육청 등에서 지원한다. 2020년 4월 교육통계 기준에 따르면 도내 초등 1~6학년 대상 학생수는 재학생 9만4,661명, 학교밖 아동 2,854명 등 총 9만7,515명이다. 한편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K에듀파크(스쿨뱅크)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또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별도 지급된다. /장은성 기자

SK 2조원 투자유치·관광개발계획 승인 등 잇단 낭보 도, 새만금 '투자랠리' 잇는다

제도개선·인센티브 발굴나서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산업, 관광 분야에 굵직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새만금에 국내 대기업 최초로 SK컨소시엄에서 2조 원을 투자한다는 낭보가 들려왔다.

그보다 앞서 하루 전 15일에는 새만금 신시아비 관광레저용지의 개발계획이 승인되기도 했다.

그간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이어지는 즐거운 소식에도 전북도는 안주하지 않고 더욱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발굴로 투자 랠리(Rally)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2018년10월)와 그린뉴딜 정책 등에 맞춰 새만금을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단지로 주목받게 하는 등 전북도의 과감한 결단도 대규모 투자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도는 정부의 기초에 빠르게 대응하며 연관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메카로써 새만금의 이미지를 선점한 결과,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업무협약을 맺거나 투자 의향을 보여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SK컨소시엄의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재생에너지산업에 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주도해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잼버리 유치,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을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큰 축제인 '2023 스카우트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함으로써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SOC 개발이 혁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법을 근거로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2024년 완료하고 있어 미래의 새만금을 어떠한 시설들로 구성할 것인지 선택지를 넓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유호상기자

이와 함께 부족한 투자 환경에도 새만금민의 차별화된 장점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이어가는 힘이 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제공이라는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낮은 임대료와 장기임대 안정적 임대료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 30여개 기업이 입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SK컨소시엄의 투자도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투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신입투자형 발전사업'이라는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신시아비 지구의 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새만금 홍보관 인근 명소화부지 관광개발사업도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항이 포함된 트라이포트 교통체계 구축은 새만금의 투자 여건 개선과 함께 전북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전망이다.

2020년 11월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남북도로와 신항만, 인입철도와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새만금은 명실상부 동북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긴 인고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새만금이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결실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최초의 대기업 투자를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이를 대규모 투자유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고 전북도도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제도·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번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공조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기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고창군
GOCHANG COUNTY

높을 High Gochang 고창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